

♣ 오늘의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독일 동부의 드레스덴에 있는 프라우엔 교회당 천정 돔 내부 모습  
2016년 10월5일 정용섭 목사 촬영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컬리지 3실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과 상관없다는 듯이 일상에 파묻혀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시간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참된 안식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찬송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눈빛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선택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예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찬송과 영광찬송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절감하지 못하여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목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의 염려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어진 시행착오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사: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간의 경쟁이 심하고, 세상에서 누룩의 역할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목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렘 33:8).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1. 내 가 산 - 을 향 하 여 눈 - 을 드 내  
2. 나 의 가 는 발 결 음 지 - 키 시 는 네  
3. 아 해 님 은 나 를 지 키 시 는 네

도 움 어 서 오 는 가 그 어 디 서  
출 고 쉬 지 도 앎 으 며 키 시 서  
나 의 모 - 든 환 난 을 면 케 하 시 며

천 지 지 으 신 야 궤 님 나 의 하 나 님  
날 의 해 - 와 밤 의 달 해 치 못 나 님  
나 의 영 혼 을 공 홀 히 살 피 하 시 고

항 상 도 - 와 주 심 을 내 가 아 네  
나 그 부 - 터 되 시 어 댔 으 키 시 네  
지 금 부 - 터 영 원 하 지 않 으 키 네

## 말 씬 예 전

###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주님, 세상의 온갖 말들로 인해서 공연히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1독서 예레미야 8: 18-9: 1 ... 김용성 집사

### 성서교독 시편 79: 1-9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이세상의 열방들이 주님땅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우리주님 귀한성전 더럽히고  
-예루살렘 모든곳을 폐허되게 하였으며 그자들이 주의종들 시인까지 흠쳐다가  
하늘나는 새들에게 먹으라고 내주었고 주의백성 살을찢어 들짐승들 주었다네  
-예루살렘 인근각처 피바다가 되었어도 희생당한 사람들을 물어줄자 없었다네  
우리모두 이웃에게 웃음거리 되었으며 이웃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 되었다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화를 내시려나 영원토록 우리주님 진노풀지 않으려나  
불길같이 타는분노 거두시지 않으려나 그격분을 쏟으소서 그격분을 쏟으소서  
-우리주님 몰라보는 열방에다 쏟으소서 그격분을 쏟으소서 그격분을 쏟으소서  
그자들이 야곱가문 집어삼켜 버렸으며 주님께서 거하는곳 밟아유린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상의죄 돌리시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비천하게 되었으니  
주의공홀 베푸셔서 속히반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주하나님  
-우리주님 영광스런 이름생각 해서라도 우리들을 도우소서 우리들을 건지소서

### 제2독서 디모데전서 2: 1-7 ... 김용성 집사

### \*제3독서 누가복음 16: 1-13 ... 김용성 집사

###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 설교 양자택일 ... 박재진 목사

### 설교후기도 ... 설교자

###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2,4절 ... 다 함께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헌금 460장 (뜻 없이 무릎 꿇는) 1절 ... 다 함께

### 중보기도 ... 목사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 \*마침찬송 460장 (뜻 없이 무릎 꿇는) 2절 ... 다 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한평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290,000원 (주일헌금: 240,000원, 통장헌금: 50,000원)  
**(2019/9/8)**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 9,10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4주	9/22	4층 아트컬리지3실	박재진	김용성	박수진
창조절 5주	9/29	4층 아트컬리지4실	이춘우	이유선	윤혜정
창조절 6주	10/6	4층 아트컬리지4실	박재진	신창식	오미영
창조절 7주	10/13	2층 세미나 1실	정용섭	채진진	이기령
창조절 8주	10/20	4층 아트컬리지4실	이춘우	고중흥	양혜선

## 9월 15일 설교 “하나님의 근본 속성” 발췌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만물은 개체이고 개별이고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총체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퍼즐 판의 각각 퍼즐 조각은 인간과 만물이고, 그 전체는 하나님입니다. 각각 퍼즐 조각은 약간씩 모양이 다르나 거의 비슷하고, 전체는 퍼즐 조각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전체는 덕수궁 모양일 수도 있고, 금강산 모양일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은 여러 개이지만 전체 덕수궁 모양과 금강산 모양은 홀로 하나입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이 그 전체 그림에 속해있다는 사실만 인식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먹고살기에 바쁘고, 아픈 몸을 추스르기도 고단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시부모와의 불편한 관계도 신경 쓰입니다. 외로움을 참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이 이런 우리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나요, 건강을 주나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얽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던 문제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삶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3:11절에서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삶을 전혀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경험합니다.

### 존귀와 영광!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찬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우리 삶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고, 죽어야 할 대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에 목을 매지 않는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일에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일이 어떻게 전개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십니까? 더 구체적인 답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에 관한 저의 사소한 일상을 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손주가 생기기를 바라시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 삶이 절정이기에 더 이상의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손주가 생긴다면 그것 역시 절정의 한순간이 되겠지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분단 체제가 하루빨리 평화 체제로 바뀌고 노동과 교육과 경제 제도가 정립되게 바뀌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지나치게 즐거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대(大)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시기를, 아멘!”